

# 사춘기 청소년의 침실분리규범 달성여부와 개인공간 만족도

## Impact of Normative Deficits for Bedroom Sharing on Housing Spac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한국교원대학교부속 미호중학교

교사 정광모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조재순

Miho Middle School attached to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eacher : Chung, Kwang Mo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rofessor : Cho, Jae Soon

### 목 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결과 및 해석

V.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bedroom-need norm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normative deficits for bedroom sharing and housing space satisfaction of adolescent. Three cases were mainly considered to apply for adolescents to share a bedroom: maximum age and number limits of a child sharing a parents' bedroom, maximum age of an old child sharing a bedroom with its siblings of the opposite sex, and maximum age of an old child sharing a bedroom with its siblings of the same sex.

The data were collected 400 eighth grade students in the three different size of regions, June-July, 1999 and 379 cases were finally analyzed. The result showed that the normative deficits for bedroom sharing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to explain housing spac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even though the condition of bedroom sharing wa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This result supports the family housing adjustment behavior model of Morris and Winter.

**주제어(Key Words):** 침실수규범(bedroom-need norms), 침실결함(normative deficit for bedroom sharing), 주거공간만족도(housing space satisfaction)

## I. 서론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 발달과 성적(性的) 성숙으로 인해 이성(性)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가 커지고 자아개념과 독립 요구가 강해져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개인공간에서 자주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싶은 욕구가 크다(김기정 역, 1995). 힐드레쓰와 호이트(1981)도 주거환경에서 프라이버시가 확보되었을 때 자아개념에 근거한 독립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유성희, 1982. 재인용). 실제로 프라이버시가 충족된 청소년은 발달과업을 원만히 수행함과 동시에 주거환경에 만족을 느껴 긍정적인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순경, 1985).

반면, 주거공간의 프라이버시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자아정체감 확립이 어렵고 자아 존중감이 훼손될 뿐 아니라 성(性)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기 어려워 역할혼미로 인한 주체적인 개체감 상실, 무력감, 자기비하, 낮은 사회성, 근친상간 등의 병리적 현상이 나타난다. 실제로 침실공간을 이성형제와 공유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자녀들에게서 근친상간의 형태가 자주 발생한다(윤가현, 1990)는 보고도 있다.

청소년의 주거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 요구는 개인의 침실분리규범에 근거한 침실 확보로 나타난다. 침실분리규범은 가족원 중 누가 누구와 어떤 조건하에서 언제까지 침실을 공유할 수 있는지 혹은 공유해서는 안 되는지에 관한 문화적 규범으로 세대 분리, 성별 분리, 연령 분리가 원칙이다(Morris & Winter, 1996). 이것은 다른 주거규범과 달리 특정 사회집단의 최저수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욕구 또는 사회복지 성격의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침실분리규범에 근거한 필요한 침실 수 확보는 자녀 출생과 성장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서 부모 의견 못지 않게 당사자인 자녀의 의견도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필요한 침실 수를 산정하기 위한 침실 분리규범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가족 수에 따른 필요 방수 및 규모에 관한 연구가 있으나 이들은 전문가가 특정기준에 의거하여 필요 방수를 계산하였

거나 연구대상자에게 필요한 침실 수를 직접 질문함으로써 응답자가 필요한 침실수를 산정 하는데 어떤 침실분리규범을 적용하였는지 그 기준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침실분리규범을 밝힌 선행연구는 주로 연구자가 외국의 기준이나 전문가 의견, 선행연구, 현재 침실 사용실태 등을 참고로 자체기준을 제시한 것과 일반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것이 있으나 모두 조사대상을 주부나 가구주 등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인간 발달상 프라이버시 요구가 급격히 커지는 사춘기 청소년을 조사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침실분리규범과 관련된 연구는 개인실(침실) 확보 및 개인실(침실) 이용형태에 따른 프라이버시 태도, 주거만족도 등에 관한 연구가 있으나 모두 주거에 대한 프라이버시와 주거만족에 관련된 여러 변인 중 하나로 개인실(침실) 이용실태만을 보고 있어서(유성희, 1982; 조경은, 1984; 김순경, 1985; 박정희, 1987; 최현주, 1995), 청소년의 침실분리규범에 근거하여 공간 확보나 공간만족도를 연구한 것을 찾아 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침실분리규범의 적용 대상자인 사춘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침실분리규범에 근거하여, 현 주거생활의 침실 사용실태를 감안한 침실분리규범이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개인실 확보 여부를 통제된 상태에서 침실분리규범 달성여부가 개인공간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침실분리규범

침실분리규범에 관한 국내연구는 일반 사회구성원인 주부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것(주택공사, 1977; 홍형욱, 1986a, 1986b; 이선옥, 1995)과, 우리나라 실태를 감안하고 외국의 제안과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로 자체 산정기준을 제시한 것(주택

공사, 1977; 한국과학기술연구소, 1979; 정 윤, 1880; 최승룡, 1984; 국토개발연구원, 1986; 서울특별시, 1997; 건설교통부, 1997)이 있다. 국내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침실분리규범을 부모와 자녀의 침실분리, 이성형제 침실분리, 동성형제 침실분리, 1인 1침실 확보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1) 부모와 자녀의 침실분리

우리 나라에서는 부모가 어린 자녀와 함께 침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다른 나라보다 더 허용적인 문화를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선행연구 결과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가 몇 살까지 부모의 침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가 혹은 몇 살부터 사용할 수 없는가에 대한 최대 허용 자녀연령에 대한 결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최대 허용 자녀연령은 가장 낮게는 3세까지(서울특별시, 1997)부터 가장 높게는 11세까지(정윤, 1980)로 나타나 기준 범위가 넓으며 정부는 만 5세를 정책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건설교통부(1997)에 의하면 전문가들은 3세까지 그리고 일반 사회구성원은 5~8세로 보고 있어서 침실분리규범에 관해 규범 원천인 전문가와 일반 사회구성원간 견해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부모와 자녀의 침실분리는 영국의 공공주택 입주 기준에서는 자녀연령이 1세가 기준이며, 일본의 최저거주수준에서는 5세이고 유도수준에서는 3세로 설정되어 있다(건설교통부, 1997). 미국 APHA의 기준에서는 자녀연령에 상관없이 부모는 자녀와 분리된 침실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Morris & Winter, 1996). 그밖에 부모와 함께 침실을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자녀수에 관해서는 소수의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데 허용 자녀수를 영국과 일본같이 1인(서울특별시, 1997; 건설교통부, 1997)으로 정하고 있다.

### 2) 이성형제 침실분리

자녀가 일정한 연령이 되어 부모와 자녀의 세대간 침실분리가 이루어지면 부모 방에서 분리되어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들이 침실을 함께 사용하다가 일정 연령이상이 되면 침실을 분리시키

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이성자녀의 침실분리 연령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기준 없이 각 가정의 개별주거상황에 따라 이성자녀들의 취침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건설교통부, 1997).

자녀의 성별과 연령차에 따라 침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연령제한에 있어 대체로 이성형제간은 동성형제간 보다 최대 허용 연령이 낮다. 이성형제가 침실을 분리해야 하는 연령은 7세(주택공사, 1977; 정윤, 1980)부터 13세(국토개발연구원, 1986)로 허용범위가 일치하지 않으며, 최근 연구에서는 8세(건설교통부, 1997)와 10세(서울특별시, 1997)를 제시하고 있다. 건설교통부(1997)의 실증연구에서는 이성형제의 침실분리 연령이 부모와 자녀의 침실분리 연령과 비슷하게 7~8세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사용 방의 수나 주거소유형태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 규범으로서의 성격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건설교통부안인 8세를 이성자녀간 침실분리 최대 연령으로 채택하고 있다.

자녀의 성별 취침분리는 영국의 공공주택 입주기준에서는 6세, 일본의 최저거주수준과 유도수준에서는 12세이다(건설교통부, 1997). 미국에서는 9세가 최대 허용 연령이다(Morris & Winter, 1996). 이성형제가 침실을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순위자녀의 성별을 고려하여 전용면적에 따라 큰딸과 작은아들일 경우 11.1세~8.2세, 큰아들과 작은딸일 경우 10.8세~8.9세에 침실을 분리하고 있어 전용면적이 클수록 침실 분리 연령이 낮고, 순위 자녀 성별에 따라 분리시기에 차이가 있음을 밝힌 연구(이선옥, 1995)가 있다.

### 3) 동성형제 침실분리

동성형제의 침실분리에 관해 최저기준에서는 침실이 극히 작지만 많으면 연령제한 없이 한 방을 사용할 수 있지만(국토개발연구원, 1986; 서울특별시, 1997; 건설교통부, 1997) 유도수준에서는 15세를 기준으로 분리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서울특별시, 1997). 정 윤(1980)은 최소기준으로 큰 자녀 나이 14세부터, 적정기준으로 큰 자녀 나이 11세부터 분리

를, 이선옥(1995)은 14.2세~10.8세에 분리를 제시하고 있다.

침실을 공유하는 동성형제 수는 국내의 대부분이 2인이나, 일부의 연구에서 7세 이상 동성 3인까지(주택공사, 1977)와 12세 이하 동성 3인까지(최승룡, 1984)등을 제시하고 있다. 동성형제간 한 방 사용이 가능한 최대 허용 연령차이에 관한 국내연구에서는 동성자녀간의 나이 차이가 7.63세이면 침실을 분리해야 한다고 하였으며(홍형옥, 1986a, 1986b), 홍형옥(1986a)의 연구에서는 동성자녀간 침실을 분리 사용해야 하는 나이 차이를 14.2세로 제시하고 있어 미국의 4세 분리보다 허용적임을 알 수 있다.

#### 4) 1인 1침실 확보

자녀가 일정 연령이상으로 성장하면 자녀의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 개인실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서울특별시, 1997). 1인 1실 사용연령에 관하여 홍형옥(1986b)은 12세, 홍형옥(1986a)은 13세, 이선옥(1995)은 13.97세~9.29세, 최승룡(1984)은 18세, 한국과학기술연구소(1979)는 19세를 제시하고 있어 연구 결과가 다양하다.

독립된 침실을 확보해야 하는 최고연령은 일본의 최저거주수준에서는 18세 이상, 유도거주수준에서는 12세 이상이며 대부분 서구선진국에서는 18세 이상이면 부부를 제외한 누구나 1인 1실을 사용하는 것을 최저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성형제간 침실분리가 당연하고 아울러 국내에서도 최저기준 이상에서는 동성형제간 침실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자녀연령별 취침상태 조사결과 동성형제간에 같은 침실을 사용하는 비율이 연령에 큰 관계없이 30%내외의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었다(서울특별시, 1997).

## 2. 침실분리규범 달성정도

침실분리규범 달성정도는 침실사용과 관련된 규범적 주거결함이다. 규범적 주거결함이란 규범적으로 정해진 수준과 실제 주거상태 사이의 차이를 의미하며 +에서 -사이에 걸친 범위의 값을 갖는다.

-결함은 가족 수에 비해 침실 수가 적은 경우를 말하며, 반대로 +결함은 침실 수가 더 많은 경우이며 값이 0인 경우는 실제주거상태와 측정된 규범이 일치하여 규범이 달성된 상태를 뜻한다.

홍형옥(1986a)이 서울시 전체가족주기 가족이 생각하는 규범적 침실분리기준과 침실사용실태를 비교한 결과, 동성자녀끼리 한 방 사용 나이차이(규범 14.2세↔실제 11.34세)와 한 방 최대 공유인 수(규범 2.45인↔실제 2.37인)를 제외하고는 결함상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자녀가 침실을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규범적 기준보다 2.26세 늦게, 이성자녀간의 침실분리는 규범적 기준보다 1.9세 늦게, 자녀 1인 1실 사용규범 연령보다는 1.9세 늦게 침실을 분리한 것이다.

중학생 자녀를 가진 확대기 가족의 부모와 자녀의 침실분리는 규범적 기준보다 1.69세 늦게, 이성자녀간 침실분리는 규범적 기준보다 1.45세 늦게, 동성자녀라도 나이 차이가 너무 많으면 발달과업이 다르므로 곤란하다는 공간사용의 심리적 배려에 따른 규범적 기준보다는 0.82세 늦게, 자녀 1인 1실 사용은 규범적 기준보다 1.09세 늦게 분리한 것으로 나타났다(홍형옥, 1986b). 전체적으로 조사대상자가 설정한 규범적 기준보다는 최소 평균 0.82~1.69년간 실제 침실분리가 일어나기 전까지 규범적 주거결함을 경험한 것이다. 이러한 실제와 규범의 차이는 주택규모가 클수록 작아져 전용면적 9평~15평의 거주자에서는 규범보다 2세 정도 늦게 침실분리가 일어났고, 전용면적 40평 이상의 거주자는 규범과 실제 침실을 분리하는 나이가 일치하였다(이선옥, 1995).

## 3. 개인공간만족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거만족도 및 개인공간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조경은(1984), 김순경(1985), 박정희(1987), 김은정(1994)이 일반적인 주거만족도를, 유성희(1982), 김순경(1985)은 개인공간만족도를, 최현주(1995)는 Maslow의 욕구단계이론을 기초로 한 주거욕구단계로 주거만족도를 측정하였

다. 배연옥(1991)은 심리적인 주거만족정도를, 한인순(1989)은 독립성과 영역성 측면에서의 개인생활공간 만족도, 유성희(1982)는 주택의 프라이버시 만족도, 주영순(1996)은 내부구조 및 시설, 입지성 및 쾌적성, 교육 및 후생시설, 사회성, 사생활 보장, 심미성 및 개성, 건강 및 안정성 측면에서 주거만족도를 측정하였다.

### 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개인공간만족도

주거만족도 및 개인공간만족도와 관련된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연령(주영순, 1996), 성별(배연옥, 1991; 최현주, 1995; 주영순, 1996), 형제순위(배연옥, 1991; 최현주, 1995), 가족수(배연옥, 1991; 주영순, 1996), 부모 및 가장의 학력(배연옥, 1991; 최현주, 1995; 주영순, 1996), 부모 직업(최현주, 1995; 주영순, 1996), 의사결정형태(최현주, 1995), 경제생활정도(배연옥, 1991), 가족형태(김은정, 1994) 등이 있다.

연령별 주거만족도 연구결과, 서울시 거주 중·고등학생은 연령이 높을수록 주거만족도가 낮았다(주영순, 1996).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의 주거만족도가 남학생보다 높았고(최현주, 1995), 주택의 내부구조 및 시설 면의 만족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주영순, 1996). 형제순위와 관련하여 최현주(1995)는 외동이거나 형제순위가 높을수록 즉, 첫째이거나 둘째인 청소년집단이 셋째 이하인 청소년집단보다 주거의 편리성에 대해 더 만족하였다. 가족수와 관련하여 주거만족도는 가족수 4명 이하의 가족에서 사생활보장면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주영순, 1996),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주거만족이 높았다(최현주, 1995; 주영순, 1996).

### 2) 주거특성에 따른 개인공간만족도

주거만족도 및 개인공간만족도와 관련된 주거특성으로는 지역(주영순, 1996), 주택규모(주영순, 1996), 주택유형(배연옥, 1991; 최현주, 1995; 주영순, 1996), 주택소유형태(박정희, 1987; 배연옥, 1991; 최현주, 1995; 주영순, 1996), 희망하는 주택유형(최현주, 1995; 주영순, 1996), 거주년수(최현주, 1995), 이사횟수(배연옥, 1991) 등이 있으며, 개인실과 관련하

여서는 개인실의 소유여부(박정희, 1987; 배연옥, 1991), 방의 기거상황 및 실 공동 사용인수와 방의 동거인(박정희, 1987; 한인순, 1989; 배연옥, 1991; 김은정, 1994; 최현주, 1995; 주영순, 1996), 방의 크기 및 크기에 대한 공간감(박정희, 1987; 한인순, 1989), 방의 실내장식(최현주, 1995) 등이 연구되었다.

주택규모가 넓을수록(주영순, 1996), 주택형태로는 저층아파트에 거주하는 청소년집단의(최현주, 1995) 주거만족도가 높았다. 현 주거에 거주년수가 5~10년 미만인 청소년집단의 주거만족도가 높았으며(최현주, 1995), 이사횟수가 많을수록 주거과밀과 관련한 주거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배연옥, 1991).

개인실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박정희, 1987; 배연옥, 1996), 방을 혼자 쓰는 집단이(박정희, 1987; 한인순, 1989; 배연옥, 1991; 최현주, 1995; 주영순, 1996), 실 공동 사용인수가 적을수록 주거만족도가 높았다(박정희, 1987; 배연옥, 1991; 최현주, 1995). 방의 동거인이 여동생인 청소년집단의 주거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최현주, 1995). 방의 크기가 클수록 주거만족도가 높고(박정희, 1987), 침실을 좁게 느낄수록 침실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한인순, 1989).

### 3) 침실분리규범 달성여부에 따른 개인공간 만족도

주거규범과 주거상황 불균형의 정도가 적을수록 즉, 주거결함이 적을수록 주거만족도는 높다(김대년, 1993).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침실분리규범 달성여부와 관련하여 개인공간만족도를 다룬 연구는 없으며 주거가치유형(주영순, 1996), 주거과밀정도(배연옥, 1991), 프라이버시태도(유성희, 1982; 김순경, 1985), 프라이버시 요구도와 충족도간의 상위(조경은, 1984)와 관련하여 주거만족도 및 개인공간만족도를 연구하였다.

청소년의 주거만족은 주거과밀 수준이 높을수록 낮고(배연옥, 1991), 프라이버시태도와 관련한 개인공간의 이용형태에서는 사용인원수가 적을수록, 안방과의 위치에서는 개인공간과 안방이 분리된 경우

가. 개인공간의 전용성 정도에서는 전용성이 강할수록, 공간의 구획유무에서는 개인영역이 확보된 경우가 개인 공간의 프라이버시태도에 긍정적이었으며 프라이버시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개인공간만족도 및 주거만족도가 높았다(김순경, 1985).

### III. 연구방법

조사대상자는 지역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대도시) 소재 중학교 2개교와 충북 청주시(중소도시) 소재 중학교 1개교, 충북 청원군(농촌지역) 소재 중학교 1개교를 선정하여 4개교의 2학년 남·여학생 각각 50명씩 총 400명을 무작위로 표집하였다.

설문도구는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연구 목적과 내용에 맞게 작성한 후, 1999년 6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4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였다. 최종 사용된 설문 내용은 조사대상자의 개인 및 가족특성 12문항, 주거특성 5문항, 침실분리규범 관련 14문항, 개인공간만족도에 관한 7개의 5점 리커트척도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개인공간만족도 7문항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973$ 이었다.

설문 조사는 1999년 6월 17일부터 7월 3일까지 16일간 표집 대상 학교에 연구자가 방문하여 담임교사 또는 가정과 교사에게 연구목적과 조사상의 유의점을 설명하고 설문 조사를 부탁한 후 수거하도록 하였다. 회수된 자료 400부 중 379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는 SPSS/WIN 7.5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검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 IV. 결과 및 해석

### 1. 침실분리규범

사춘기 청소년의 침실분리규범을 부모와 자녀의 침실분리, 이성형제 침실분리, 동성형제 침실분리의 세 영역으로 분류하여 각 영역별로 침실분리여부, 침실분리시기, 한 방 최대 사용인수, 사용자간 최대 허용 연령차이 등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표 1, 표 2, 표 3).

#### 1) 부모와 자녀의 침실분리

부모와 자녀의 침실분리에 관하여는 조사 대상자의 83.1%가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와 방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괜찮지만 자녀가 자라면서 방을 따로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부모와 자녀의 침실분리시기는 자녀나이 최빈값 10세, 평균값 9.4세로 나타났다. 부모와 한 방을 사용할 때 가능한 최대 자녀수는 2인이 50.0%, 1인 45.4%로 나타나 95.0% 이상이 자녀 1~2인이 부모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 2) 이성형제 침실분리

이성형제 침실분리에 관하여는 어릴 때는 한 방을 사용해도 좋으나 성장한 후에는 방을 따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68.5%, 아무리 어리더라도 이성형제끼리는 절대 한 방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23.8%, 이성형제라 하더라도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한 방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의견이 7.7% 순으로 나타났다. 이성형제 침실분리 시기에서 순위형제가 누나인 경우 누나나이 최빈값은 10세, 평균값은 10.9세이고, 순위형제가 오빠인 경우 오빠나이

<표 1> 침실분리여부

		N(%)		
침실분리여부	영역	부모-자녀 한 방 사용	이성형제 한 방 사용	동성형제 한 방 사용
어느때도 함께 사용 절대 안됨		31( 8.2)	90(23.8)	18( 4.8)
어릴 때는 한 방 사용 가능		315(83.1)	259(68.5)	85(22.6)
계속 한 방 사용 가능		33( 8.7)	29( 7.7)	273(72.6)

<표 2> 침실분리시기 및 사용시간 최대허용연령차이

N(%)

침실 분리나이	영역	이성형제 침실분리시기		동성형제 침실분리시기		사용자간 최대 허용 연령차이	
	부모-자녀 침실분리시기	누나나이	오빠나이	형 나이	언니나이	이성형제	동성형제
1						8.4	1.4
2	0.3					17.7	7.9
3	0.7					20.0	15.9
4	1.3	0.4	0.4			5.1	6.5
5	5.3	2.9	3.5			14.0	25.2
6	6.3	0.8	1.3	1.4	1.4	1.4	2.8
7	14.5	10.5	10.0	5.5	2.7	3.7	2.3
8	10.2	6.7	10.0	5.5	5.4	3.7	1.9
9	9.2	4.6	6.1			2.3	
10	20.4	23.5	17.0	19.2	17.6	7.0	8.9
11	5.6	8.4	10.4	9.6	9.5	2.3	2.3
12	11.8	11.8	10.4	12.3	13.5	3.7	2.8
13	8.9	12.6	12.6	15.1	17.6	2.3	4.7
14	3.0	9.2	10.0	8.2	6.8	1.9	3.3
15	2.0	5.0	4.8	9.6	16.2	1.9	6.5
16		1.3	3.0	5.5	4.1	0.9	1.4
17	0.3	0.8		2.7	1.4	1.9	2.3
18	0.3	0.8	0.4	2.7		0.9	1.4
19		0.4		1.4	1.4	0.5	0.9
20				1.4	1.4	0.5	1.4
21					1.4		
평균	9.4	10.9	10.7	12.3	12.5	5.8	7.5
중간값	10.0	11.0	11.0	12.0	12.5	4.0	5.0
최빈값	10.0	10.0	10.0	10.0	10.0	3.0	5.0
표준편차	2.74	2.78	2.81	3.02	2.87	4.54	4.98

<표 3> 한 방 최대 사용인수

N(%)

사용인수	영역	부모와 자녀 한 방 사용시 자녀수	이성형제끼리 한 방 사용시	동성형제끼리 한 방 사용시
1인		168(45.4)	-	-
2인		185(50.0)	217(73.6)	205(57.7)
3인		14( 3.8)	55(18.6)	123(34.6)
4인 이상		3( 0.8)	23( 7.8)	27( 7.6)

최빈값은 10세, 평균값은 10.7세로 나타나 손위형제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분리연령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성형제 한 방 최대사용인수는 2인이 73.6%, 3인 18.6%, 4인 이상이 7.8%로 나타났다.

## 3) 동성형제 침실분리

동성형제 침실분리에 관하여는 동성형제인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한 방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의견이 72.6%, 어릴 때는 한 방을 사용해도 좋으나 성장한 후에는 방을 따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22.6%, 아무리 어리더라도 절대 한 방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4.8%이었다. 동성형제 침실분리시기는 형의 나이 최빈값이 10세, 평균값이 12.3세이고, 언니 나이는 최빈값이 10세, 평균값이 12.5세로 형제와 자매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동성형제 한 방 최대사용인수는 2인 57.7%, 3인 34.6%로 나타나 92.0% 이상이 동성형제끼리는 2~3인이 방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 4) 사용자간 최대 허용연령차이

형제나 자매가 한 방을 사용하기 곤란한 나이차이에 대해, 이성형제는 최빈값 3세, 평균값 5.8세이고, 동성형제는 최빈값 5세, 평균값 7.5세로 나타났다.

## 2. 침실 사용실태 및 침실분리규범 달성정도

## 1) 침실 사용실태

사춘기 청소년의 침실 사용실태는 혼자서 방을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이 63.9%이었고, 둘이 사용하는 청소년이 32.5%, 세 명 사용이 2.6%, 네 명 사용

이 1.1%로 다른 가족원과 함께 방을 사용하는 청소년이 36.1%이었다(표 4).

방을 함께 사용하는 가족원으로는 동성형제가 26.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이성형제 5.3%, 부모 1.8%, 조부모 1.3%, 기타가족원(고모) 0.5%로 나타났으며, 그 외 두 관계이상의 가족원과 함께 방을 사용하는 청소년도 있어서 부모 및 동성형제와 함께 사용하는 청소년이 0.8%, 동성 및 이성형제와 한 방을 사용하는 경우도 0.3% 있었다.

## 2) 침실분리규범 달성정도

침실분리규범 달성정도는 각 조사대상자의 형제자매구성을 고려하여 외동이는 부모와 자녀의 침실분리여부 및 침실분리시기에 대한 개인적인 규범을 현재의 침실 사용실태와 비교하였다. 동성형제가 있는 청소년은 부모와 자녀의 침실분리와 동성형제 침실분리에 대한 개인적인 규범을, 이성형제가 있는 청소년은 부모와 자녀의 침실분리와 이성형제 침실분리에 대한 개인적인 규범을, 동성형제와 이성형제가 모두 있는 청소년은 부모와 자녀의 침실분리와 동성형제 및 이성형제 침실분리에 대한 개인적인 규범을 현재 침실 사용실태와 비교하여 달성정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표 5), 조사대상자의 67.3%가 침실분리규범이 달성된 상태에 있는 반면, 16.1%의 청소년이 +결함을, 16.6%의 청소년은 -결함을 갖고 있는 것

〈표 4〉 침실 사용실태

N(%)

가족원 사용인수	본인	동성형제		이성형제		부모	조 부모	기타 가족	부모와 동성형제	동성 및 이성형제	계	
		손위	손아래	손위	손아래							
혼자	242 (63.9)										242 (63.9)	
2인		40 (10.6)	53 (14.0)	4 (1.1)	15 (4.0)	4 (1.1)	5 (1.3)	2 (0.5)			123 (32.5)	
3인		6 (1.6)				3 (0.8)			1 (0.3)		10 (2.6)	137 (36.1)
4인				1 (0.3)					2 (0.5)	1 (0.3)	4 (1.1)	
계	242 (63.9)	99 (26.1)		20 (5.3)		7 (1.8)	5 (1.3)	2 (0.5)	3 (0.8)	1 (0.3)	379 (100)	



<표 5> 사용인수별·가족원별 침실분리규범 달성정도

N(%)

사용인수 가족원		침실분리규범달성정도		달성		+결합		-결합		계	
혼자 사용		본인		181(74.8)		61(25.2)				242(63.9)	
둘이 사용하는 경우	동성형제	손 위	27 (67.5)	67 (72.0)			13 (32.5)	26 (28.0)	40 (100)	93 (100)	
		끼리	40 (75.5)				13 (24.5)		53 (100)		
	이성형제	손 위		4 (21.1)			4 (100)	15 (78.9)	4 (100)	19 (100)	
		끼리	4 (26.7)				11 (73.3)		15 (100)		
			부모와	2(50.0)				2(50.0)	4(100)		
			조부모와	1(20.0)				4(80.0)	5(100)		
		기타가족원과					2(100)	2(100)			
		소 계	74(60.2)				49(39.8)	123(32.5)			
셋이 사용하는 경우	동성형제끼리						6(100)	6(100)			
	부모와 동성형제						1(100)	1(100)			
	부모와						3(100)	3(100)			
		소 계					10(100)	10(2.6)			
넷이 사용하는 경우	이성형제끼리						1(100)	1(100)			
	동성 및 이성형제						1(100)	1(100)			
	부모와 동성형제						2(100)	2(100)			
	소 계						4(100)	4(1.1)			
총 계			255(67.3)		61(16.1)		63(16.6)	379(100)			

으로 나타났다.

이를 한 방 사용인수별로 구분해보면 방을 혼자 사용하는 청소년의 74.8%가 침실분리규범 달성을, 25.2%는 +결합을 나타냈고, 방을 둘이 사용하는 청소년은 60.2%가 달성, 39.8%는 -결합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방을 셋 또는 넷이 함께 사용하는 청소년은 100%가 -결합을 경험하고 있었다.

침실분리규범 달성정도를 한 방 사용 가족구성원별로 구분해보면 동성형제와 둘이 한 방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72.0%(손위와 67.5%, 손아래와 75.5%)가 침실분리규범 달성을, 28.0%(손위와 32.5%, 손아래와 24.5%)는 -결합을 갖고 있으며, 이성형제와 둘이 한 방을 사용하는 경우 21.1%(손위와 0%, 손아래와 26.7%)가 달성, 78.9%(손위와 100%, 손아래와 73.3%)는 -결합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와 둘이 한 방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손위나 손아래냐에 따

라 규범 달성 정도가 다를 수 있다.

부(모)와 둘이 한 방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달성과 -결합이 각각 50%이었으며, 조부(모)와 둘이 한 방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20.0%가 달성, 80.0%는 -결합을, 기타가족과 둘이 한 방을 사용하는 경우는 100%가 -결합으로 나타났다. 셋 이상이 한 방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가족원에 관계없이 100%가 -결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실분리규범 달성정도의 '+결합'은 16.1%로 모두 혼자서 방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혼자 사용시에는 부적합이 있을 수 없으므로 t-검증 결과 '+결합' 집단이 '달성' 집단과 개인공간만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회귀식에서는 +결합을 달성에 포함하고 -결합만 침실 분리결합으로 보았다.

### 3. 개인공간만족도

사춘기 청소년의 개인공간만족도는 5점 척도로 된 7개 문항을 합하여 평균한 것으로 5점 만점에 3.49점으로 중간점을 상회하고 있어 평균 만족도는 보통보다 높게 나타났다.

#### 1) 침실분리규범 달성여부에 따른 개인공간 만족도 차이

사춘기 청소년의 개인공간만족도가 침실분리규범 달성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t-검정한 결과, '달성'과 '결함'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표 6위). 기대하는 바와 같이 침실분리규

범이 달성된 청소년집단은 결함이 있는 청소년집단보다 개인공간만족도가 더 높았다.

전체 대상자 중 침실분리규범이 달성된 집단은 침실 사용 상태에서 혼자서 방을 사용하는 청소년과 다른 사람과 함께 방을 사용하는 청소년이 혼합 구성되어 있고, 결함이 있는 집단은 다른 사람과 함께 방을 사용하는 청소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달성집단과 결함집단간 개인공간만족도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독방사용여부만에 의한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 방을 사용하는 청소년을 침실분리규범이 달성된 집단과 결함이 있는 집단으로 나누어 개인공간만족도를 t-검증하였다. 그 결과(표 6아래)에서도 두 집단

〈표 6〉 침실분리규범 달성여부별 개인공간만족도 차이

	침실분리규범 달성여부	개인공간만족도		
		N	평균	t
전체대상자	달성	316	3.65	8.140***
	결함	63	2.64	
방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	달성	74	3.11	2.969**
	결함	63	2.64	

\*\* p<.01 \*\*\* p<.001

〈표 7〉 개인공간만족도에 미치는 일반적 특성과 침실분리규범달성여부의 영향

변 수		B	$\beta$	t	B	$\beta$	t
사회 인구 학적 특성	성별(1=여자)	-.143	-.073	-1.471	-.135	-.069	-1.392
	연령	-.231	-.125	-2.625**	-.208	-.112	-2.362*
	형제 수	-.0636	-.036	-.525	-.101	-.057	-.835
	출생순위	.05751	.043	.780	.05640	.042	.769
	형제성별구성(1=이성형제)	-.0502	-.026	-.469	-.00232	-.001	-.021
	가족형태(1=핵가족)	.174	.064	1.235	.168	.062	1.203
	아버지 학력	-.0263	-.018	-.328	-.0294	-.021	-.369
주거 특성	경제생활정도	.353	.177	3.567***	.345	.173	3.502***
	거주지역(1=인천)	.101	.052	1.044	.101	.052	1.052
	주택유형(1=아파트)	-.0495	-.025	-.484	-.0398	-.020	-.391
	주택소유형태(1=소유)	.05056	.022	.424	.03204	.014	.269
	침실 수	-.0236	-.015	-.249	-.0198	-.013	-.210
독방사용여부(1=독방)	.807	.397	6.552***	.632	.311	4.339***	
침실분리규범달성여부(1=결함)					-.348	-.133	-2.225*
				$R^2 = .263$	$F = 8.207$		
					$R^2 = .273$	$F = 8.091$	

\* p<.05 \*\* p<.01 \*\*\* p<.001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방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면서 침실분리규범이 달성된 청소년집단이, 방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면서 침실분리결합이 있는 청소년집단보다 개인공간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따라서 침실분리규범 달성여부는 독방사용여부와 함께 사춘기 청소년의 개인공간만족도에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일반적 특성 및 주거규범달성여부와 개인공간만족도

사춘기 청소년의 개인공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변인간에 다중 공선성이 있는지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상관계수가 0.6이하로 나타난 변인들로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표 7).

사춘기 청소년의 개인공간만족도 회귀식에 유의한 변수는 연령, 경제생활정도, 독방사용여부, 침실분리규범 달성여부의 네 변수로 나타났으며, 영향력의 크기는 독방사용여부, 경제생활정도, 침실분리규범 달성여부, 연령 순으로 나타났다. 즉, 혼자 방을 사용하고, 경제생활수준이 높고, 침실분리규범 달성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개인공간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방사용여부를 포함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거특성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침실분리규범 달성 여부는 개인공간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및 논의

사춘기 청소년의 침실분리규범 및 침실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침실분리규범 달성여부와 개인공간만족도의 관계를 밝힌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춘기 청소년은 침실분리여부에 관하여 부모와 자녀간, 이성형제간에는 어릴 때는 괜찮지만 성장한 후에는 방을 따로 사용해야 한다는 규범을 가지고 있었으며, 동성형제끼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한 방을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동성형제 침실분리규범이 부모와 자녀

간, 이성형제간 침실분리규범보다 좀더 허용적임을 알 수 있다. 침실분리시기에 관해서는 부모와 자녀간, 이성형제간 모두 특정 연령에 정착된 규범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대체로 가족생활주기의 변화시점인 7~8세, 10세, 12~13세를 분리나이로 보는 청소년이 많았다. 한 방 최대 사용인수에 관해서는 부모와는 자녀 1~2인, 이성형제끼리는 2인, 동성형제끼리는 2~3인이었으며, 동성의 형제자매라도 연령 차이가 크면 방을 따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사용자간 최대 허용 연령차이는 규범으로 판단할 만큼 특정한 연령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둘째, 사춘기 청소년의 침실 사용실태는 2/3정도의 청소년이 독방을, 1/4은 동성형제와, 약 1/10은 동성형제가 아닌 가족원과 함께 방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조사 대상자 27명당 1명 정도는 셋 이상인 한 방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방을 사용하는 실태가 사춘기 청소년의 침실분리규범과 일치하는가를 알아본 달성정도에서는 침실분리규범이 달성된 청소년은 2/3정도이었고, +결합과 -결합이 각각 약 1/6이었다. 침실분리규범 달성정도의 +결합을 '달성'으로 포함시키면 16.6%가 침실분리결합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침실분리규범이 달성된 청소년은 방을 혼자 사용하는 청소년이거나 주로 동성형제와 둘이 한 방을 사용하는 청소년이었으며, 결합이 있는 청소년은 대부분 이성형제나 조부모, 기타가족원과 둘이나 셋 이상이 한 방을 사용하는 청소년이었다. 한 방을 사용하는 가족원이 누구인가 그리고 순위인가 손아래인가 하는 사실은 독방사용여부와 더불어 청소년의 침실분리규범 달성여부에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사춘기 청소년의 개인공간만족도는 비교적 중상 이상의 높은 수준이었다. 침실분리규범 달성여부에 따른 개인공간만족도는 침실분리규범이 달성된 청소년집단이 결합이 있는 청소년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특히 방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침실분리규범이 달성된 청소년집단은 결합이 있는 청소년집단보다 개인공간만족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침실분리규범 달성여부가

독방사용여부와 더불어 사춘기 청소년의 개인공간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사춘기 청소년의 개인공간만족도와 관련변인의 회귀분석에서는 방을 혼자 사용하고, 경제생활 수준이 높고, 침실분리규범이 달성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더 높았다. 독방사용여부와 경제생활 정도에 따른 개인공간만족도는 주거만족과 관련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며, 연령에 따라 개인공간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청소년이 성장함에 따라 프라이버시 확보요구가 더 커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침실분리규범 달성여부에 따라 개인공간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난 결과는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주택의 물리적 요소 중 침실 사용상태가 청소년의 공간규범과 일치하는가가 개인공간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독방사용여부인 주택의 물리적인 환경변수만으로는 청소년의 개인공간만족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으며, 이와 더불어 공간 사용상태를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침실분리규범과 비교하여 현실태와 규범의 일치여부가 개인공간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춘기 청소년의 개인공간만족도를 높여 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인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청소년 자신의 규범에 근거한 침실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주거공간 계획이 필요하며, 또한 주택정책수립에 근간이 되는 필요 침실수 산정시 전문가나 주부가 아닌 침실사용자 자신의 침실분리규범을 산정기준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 참고문헌

- 건설교통부(1997). 주거기준 도입방안 연구.
- 국토개발연구원(1986). 주거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 김기정 역(1995). 자아의 발달. 서울: 문음사.
- 김대년(1993). 대도시 가족의 주거생활주기 유형분석.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순경(1985). 청소년의 주거의식과 가정환경변인과 의 관계: 개인공간에 대한 프라이버시 태도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은정(1994). 3대동거가족의 세대별 주거의식 및 주거만족도 비교: 청주시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대한주택공사(1977). 주택유효수요추정연구.
- 박정희(1987). 청소년의 주거만족도와 사회적·대응성과의 관계.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_\_\_\_\_(1992). 도시주거계층 연구: 분석모형의 탐색.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배연옥(1991). 주거과밀이 청소년의 사회적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광명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울특별시(1997). 복지주거기준제도 도입을 위한 주거기준 및 정책개발연구.
- 유성희(1982). 청소년의 주거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개인공간의 프라이버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가현(1990). 성 심리학. 서울: 성원사.
- 이선옥(1995). 대도시 집합주택 거주자의 주거공간 규범에 관한 연구: 대구시의 확대기 및 3LDK 거주자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 윤(1980). 가족구성에 따른 소요침실 수의 산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경은(1984). 주거내 프라이버시 요구도와 충족도 간의 상위가 청소년의 주거만족에 미치는 영향: 부산시내 아파트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주영순(1996). 청소년의 주거가치 유형과 주거만족도: 서울시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승룡(1984). 가족구성에 따른 소요 침실 수와 주거면적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현주(1995). 청소년의 주거만족에 관한 연구: 서

- 울시 중학생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인순(1989). 저소득층 청소년의 개인생활 공간 사용실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형욱(1986a). 주거조정 및 적응에 관한 예비 조사 연구: 주거규범·주거결함차원의 탐색.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4), 61-73.
- \_\_\_\_\_(1986b). 한국인의 주거조정 및 적응에 관한 연구: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Morris, E. W. & Winter, M.(1996). *Housing, Family and Society*. Revised ed.